



최근 3년간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의 동향

서연옥¹⁾ · 박정숙²⁾ · 양진향³⁾ · 김혜원⁴⁾ · 석민현⁵⁾ · 신현숙⁶⁾ · 장희정⁷⁾ · 정면숙⁸⁾ · 정명실⁹⁾

1)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2)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3)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4) 관동대학교 간호학과, 5) 포천중문의과대학교 간호학부
 6)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7) 한림대학교 간호학부, 8) 경상대학교 간호대학, 9) 성신여자대학교 간호대학

Analysis of Research Paper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Suh, Yeon-Ok¹⁾ · Park, Jeong Sook²⁾ · Yang, Jin-Hyang³⁾ · Kim, Hae-Won⁴⁾ · Suk, Min-Hyun⁵⁾
 Shin, Hyun-Sook⁶⁾ · Jang, Hee-Jung⁷⁾ · Jung, Myun-Sook⁸⁾ · Chung, Myung-Sill⁹⁾

1)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2) College of Nursing, Keimyung University
 3)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Inje University, 4)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Kwandong University
 5)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ochon CHA University, 6) College of Nursing, Kyunghee University
 7) Division of Nursing, Hallym University, 8) College of Nursi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9) College of Nursing, Sungsin University

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current trend of nursing research as explor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methodologies, and to provide the explicit direct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shed papers. **Methods:** Total of 366 articles published between 2004 and 2006 was reviewed using the criteria of analysis. **Results:** There was more number of quantitative studies than qualitative studies. More studies were conducted with subjects who had health problems, and studies that targeted women and elderly population have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In quantitative methodology, utilization of experimental and quasi-experimental designs has been increased,

however descriptive study was dominant as yet. In qualitative methodology, studies using grounded theory and phenomenology were frequently published. It was noted that theoretical framework and rational for sample size were rarely presented in quantitative study. Philosophical position and the process of preparation for study, which guided the research, were not clearly described in qualitative study.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review suggest that published studies have been improved and diversified, however, detailed and clear evaluation tool that assesses study process and method should be developed as a way to further improve the quality of published papers.

Key words : Review, Nursing research, Research design

주요어 : 논문분석, 연구방법, 간호연구

투고일: 2007년 6월 22일 심사완료일: 2007년 10월 15일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uh, Yeon-Ok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Soonchunhyang University
 366-1, Cheonan 330-090, Korea
 Tel: 82-2-709-9495 Fax: 82-2-709-9495 E-mail: yeonok@sch.ac.kr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대한간호학회지는 우리나라 간호학계의 대표학술지로서 2001년 학술진흥재단 등재지에 등재된 이후 2004년 8월부터는 미국국립 의학도서관의 웹사이트인 PubMed에 등재되어 (Jeong, Ahn, & Cho, 2005), 2003년 2월에 발간된 제 33권 제 1호부터 PubMed에서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영문 초록을 검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우리나라 간호학의 연구업적을 알리고 공유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간호학문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다.

학문의 발전은 연구를 통하여 지식체가 누적되고 정립되어 이론이 생성되며 다시 연구로 회환되는 지속적인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보다 훌륭한 연구방법을 구상하고 지식체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체의 개발이나 방법론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선행연구 논문들을 분석하여 그동안 축적되어온 탐구경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연구와 지식체 생성방향을 조망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 간호연구 논문분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주로 연구방법측면에서 분석되었고, 1990년대에는 특정 개념이나 주제 또는 학위논문을 기준으로 분석된 결과가 있으며(Kim et al., 2004),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통계기법의 활용(Kang, 2002), 간호학 지식분류유형(Kim et al., 2004)이나 논문 주어 등(Jeong et al., 2005)을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논문분석 결과들은 간호학에 대한 전반적인 탐구경향이나 지식체 생성에 관한 정보와 간호학 연구의 방향을 제공해주고 있으므로, 간호학 연구의 새로운 조망을 탐색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석방법을 이용한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의 수준은 점차 더 다양해지고, 질적으로 향상되어왔으나 국제학술지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산재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한간호학회 출판위원회에서는 온라인 논문심사 제도와 편집위원 및 심사위원 워크숍,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회원교육 등 논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회지 게재논문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으나 그동안 게재논문에 대한 평가는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에서는 학술진흥재단 학술지 계속등재를 위한 평가항목에 유사전공 학회지와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고하는 정성적 평가영역이 제시되어 있어 게재 논문의 질 제고를 위한 논문분석과 지속적인 질 모니터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대한간호학회의 출판위원회에서는 최근 3년간의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을 질적, 양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논문

경향을 전반적으로 고찰하고 향후 대한간호학회지의 나아갈 방향을 조망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04년-2006년까지 최근 3년간의 대한간호학회지 게재 논문을 분석하여 고찰하기 위함이며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 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방법, 연구유형, 연구대상자를 분석한다.
- 연구방법별 대상자수와 심사소요기간을 비교한다.
- 연구방법별 연구유형의 특성을 분석한다.
 - 양적 연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 질적 연구의 특성을 분석한다.
- 항목별 분석을 통하여 최근 대한간호학회지의 논문경향을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 제시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연구논문의 연구맥락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 대상

분석대상 논문은 2004년 제 34권 제 1호부터 2006년 제 36권 제 8호(영문판 제외)까지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총 366편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자료 분석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3년간 총 366편의 논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연구방법의 특성에 따라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로 분류하여 세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방법별 특성에 포함되지 않는 연구 26편을 제외한 340편을 분석하였다. 논문 분석을 위한 도구는 선행연구(Anderson, 2003; Kim et al., 2004)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들이 작성한 도구를 이용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종합분석

총 366편 논문의 연구방법 및 연구설계, 연구유형, 심사소요기간, 연구대상자와 대상자수를 분석하였다.

● 연구방법별 분석

연구방법에 따른 분석에서 양적연구는 연구설계, 신뢰도 및 타당도 기술여부, 실험연구의 경우 생리적 측정 여부, 중재적용 여부,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해 기술되어있는지, 그리고 이론적 틀을 제시하였는지 분석하였다. 질적연구는 연구설계, 철학적 배경여부, 연구자 훈련여부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신뢰도와 분석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연구방법별 분석에서는 양적 및 질적논문 분석의 틀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 26편을 제외한 340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에서 제외된 논문은 프로그램 개발, 메타분석, 간호원가분석, 종설 등이다.

연구 결과

종합 분석결과

● 연구방법

최근 3년간의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의 연구방법별 분포는 양적연구가 307편(83.9%)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질적연구가 33편(9.0%)이었으며, 기타연구로 메타분석이나 프로그램 개발연구, 원가분석을 주제로 한 논문이 26편(7.1%)이었다 <Table 1>.

● 연구유형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유형을 확인한 결과 일반논문이 226편(61.7%)였으며, 그 다음이 연구비 수혜논문 112편(30.6%), 학위논문 29편(7.9%)의 순이었다 <Table 1>.

<Table 1> Analysis of research (N=366)

Variables	Characteristics	N(%)	Mean(SD)
Research method	Qualitative	307(83.9)	
	Qualitative	33(9.0)	
	Others	26(7.1)	
Classification of research	Grant	112(30.6)	
	Thesis or dissertation	29(7.9)	
	Research paper	226(61.7)	
Length of time for review(day)		116.95(64.58)	range 11-367

●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 자료 분석은 <Table 2>와 같다. 대상자수는 한 연구에서 두 유형의 대상자에게 연구한 경우가 있어 복수응답으로 처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입원환자 또는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가 159편(40.7%), 일반대상자 124편(31.7%), 의료인 54편(13.8%)이었

다. 입원환자 또는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 중에서는 성인 대상 연구 82편, 여성, 임신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 34편의 순이었다. 건강한 대상자 중에서도 여성, 임신부가 39편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 청소년이 33편, 노인 32편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그 외 간호사 대상 연구가 36편, 기타 차트, 건강검진 자료, 원가분석 등의 자료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35편이었다.

<Table 2> Analysis of research subjects

Variables	Subjects	N*	Total N(%)
Subjects with health problems	Children, adolescence	15	159(40.7)
	Adult	82	
	Elderly	12	
	Women	34	
	Caregivers	16	
Subjects without health problem	Children, adolescence	33	124(31.7)
	Adult	20	
	Elderly	32	
	Women	39	
Health professions	Nurse	36	54(13.8)
	Nursing students	15	
	Health teacher	3	
Institutions	Hospital environment, nursing institutions	4	4(1.0)
Others	Meta-analysis, cost analysis	15	50(12.8)
	Health insurance data, animal, material etc.	35	
Total		391	

* multiple response

연구방법별 분석결과

● 연구방법별 대상자수와 심사소요기간

연구대상자수는 양적연구가 평균 1745명, 질적연구가 26명이었다. 심사소요기간은 양적연구가 11일에서부터 367일까지로 평균 116일이 소요되었으며, 질적연구는 38~350일 사이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130일이 소요되었다 <Table 3>

<Table 3> Sample size and length of time for review following research method (N=340)

Variables	Quantitative		Qualitative	
	Range	Mean(SD)	Range	Mean(SD)
Sample size	10-376,451	1744.64 (21701.36)	1-207	26.24 (40.16)
Length of time for review(day)	11- 367	115.52 (64.54)	38-350	130.21 (64.46)

● 양적연구의 특성

양적연구는 연구설계, 연구유형, 현재 및 과거 신뢰도, 생리적 측정방법, 간호중재 적용, 대상자수 기준, 이론적 틀에 따라 분류하였다.

양적연구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설계방법은 조사연구 145편(47.2%)이었고, 유사실험설계 106편(34.5%), 기타 연구 25편(8.2%), 원시실험설계 21편(6.8%), 순수 실험연구 및 무작위 대조군 설계 10편(3.3%)의 순이었다. 연구유형은 일반논문 187편(60.9%), 연구비 수혜논문 99편(32.3%), 학위논문 21편(6.8%)이었다. 연구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이전 연구의 신뢰도를 보고한 논문은 76편(24.8%), 현재 연구의 신뢰도를 보고한 논문은 231편(75.2%)이었다. 실험설계에서 중재를 적용한 연구는 131편(42.7%)이었고, 연구대상자수 산정 근거를 제시한 논문은 52편(17.0%), 이론적 틀이 제시된 논문은 36편(11.8%)이었다.

<Table 4> Analysis of quantitative research (N=307)

Variable	Characteristics	N(%)
Design	Experimental, randomized control pre-post	10(3.3)
	Quasi experimental(pre-post, post, repeated measure)	106(34.5)
	Single group pre-post, post	21(6.8)
	Descriptive	145(47.2)
	Others*	25(8.2)
Classification of research	Grant	99(32.3)
	Thesis or dissertation	21(6.8)
	Research paper	187(60.9)
Current reliability	Reported	231(75.2)
	Not reported	76(24.8)
Past reliability	Reported	145(47.2)
	Not reported	162(52.8)
Intervention	Yes	131(42.7)
	No	176(57.3)
Criteria for sampling	Yes	52(17.0)
	No	254(83.0)
Theory guided	Yes	36(11.8)
	No	269(88.2)

* methodological research

● 질적연구의 특성

질적연구는 연구설계, 연구유형, 철학적 배경, 연구자 훈련과정, 신뢰도 보고, 자료분석과정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질적연구 논문 중에서는 근거이론 방법이 9편(27.3%)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상학 6편(18.2%), Q 방법론 5편(15.1%), triangulation 4편(12.1%)이고, 기타 질적연구방법이 6편으로 18.2%였다. 질적연구의 유형은 일반논문이 18편(54.5%)으로 대부분이었고, 연구비수혜논문 8편(24.2%), 학위논문 7편(21.2%)였다. 철학적 배경이 설명되어있는 논문은 4편(12.1%)

이었고, 질적연구를 위한 연구자 훈련과정이 기술된 논문은 6편(18.2%), 신뢰도가 제시된 논문 11편(33.3%), 자료 분석과정이 설명된 논문은 29편(87.9%)이었다.

<Table 5>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N=33)

Variables	Characteristics	N(%)
Design	Phenomenology	6(18.2)
	Ground theory	9(27.3)
	Ethnography	3(9.1)
	Triangulation	4(12.1)
	Q methodology	5(15.1)
	Others	6(18.2)
	Classification of research	Grant
	Thesis or dissertation	7(21.2)
	Research paper	18(54.5)
Philosophical underpinning	Yes	4(12.1)
	No	29(87.9)
Researcher training	Yes	6(18.2)
	No	27(81.8)
Reliability	Reported	11(33.3)
	Not reported	22(66.7)
Analysis process	Mentioned	29(87.9)
	Not mentioned	4(12.1)

논 의

최근 3년간의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총 366편으로 동료평가(peer review)를 하는 간호 전문 학회지 중에서 가장 많은 논문이 게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으로 환산하면 연 122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1990년대 평균 59.8편이 게재되었던 것(Choi et al., 2000)과 비교해 볼 때 양적으로 거의 두 배가 증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분석에서 제외된 영문학회지 논문의 수를 포함시킨다면 양적인 증가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이는 각 대학의 연구업적 강화로 회원들의 요구가 증가되었고, 학술진흥재단 등재학술지의 경우 연구실적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생각되며, 앞으로도 그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게재논문의 양적인 증가와 더불어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 현재 논문심사 과정 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객관적 논문평가를 위한 의견도출 결과를 제시하여(Kim et al., 2007), 논문심사과정의 구체성과 심사자의 주관성을 반영하는 심사서 양식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였다.

논문의 유형은 1990년대와 비교해 볼 때 연구논문은 증가되고, 연구비 수혜논문과 학위논문의 게재율은 감소되었다. 이러한 결과에는 교내외 연구비 수혜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국내 간호학자들의 논문이 외국저널에 게재되는 비율이 높아진 영향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학위논문의 경우 이전에는 심

사과정 없이 게재가 가능하였으나 2000년대 이후부터는 심사를 거쳐야 게재할 수 있으며, 본 학회지의 경우 지도교수와 공동으로 논문을 게재한 경우에는 학위논문임을 명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실제 학위논문의 게재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논문투고부터 심사완료까지 소요된 기간은 양적연구가 평균 116일, 질적 연구가 130일로 질적연구의 심사기간이 더 오래 소요되었으며, 전체논문의 84.4%가 6개월 이내 논문심사가 완료되었다. 이는 평균 8.7개월(range=2~21개월)로 보고한 외국 저널 분석결과(Anderson et al., 2003)보다 소요기간이 단축되었지만 심사기간이 최저 11일에서부터 최대 367일까지 격차가 크기 때문에 심사소요기간에 대해 회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심사기간이 지나치게 단축되었거나 또는 길어지는 이유를 분석하여 가능한 심사소요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대한간호학회지 출판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현재 온라인 심사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므로 일정기간이 지난 후 이 방법이 심사소요기간 단축에 도움이 되는지를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대상자는 건강문제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많았고, 그 외 의료인이나 기관, 비용분석, 보험수가 자료, 동물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있어 점차 다양해지고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한 논문이 30편(5.0%)이었던 것에 비해(Choi et al., 2000) 건강문제가 있는 여성과 일반여성을 모두 합하여 73편(18.7%)으로 현저하게 증가되었고, 노인대상자도 32편(5.4%)에서 44편(11.3%)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빈곤층이나 시설 노인, 치매노인에 대한 연구와 비만 여성, 요보호 윤락여성과 같은 의료 소외계층이었던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음을 반영한다고 하겠다.

본 연구결과에 나타나 있듯이 너무나 다양한 연구대상자가 대한간호학회지의 장점임과 동시에 단점이 될 수도 있다. 이는 곧 대한간호학회지의 특성이 불분명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회지의 질적 향상에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학술지 평가에서 학술지의 학문적 가치와 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학술지의 독창성이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본 학회지 게재논문의 특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 고려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선행연구(Chang, 2005)에서는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이 우리나라의 간호현상을 간호학문의 발전적 관점에서 균형있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지식추구의 특성에 따라 게재논문을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게재논문의 주제나 대상자 또는 방법론적 특성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학술지의 특성을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게재논문을 연구방법별로 분석한 결과 양적연구에서 간호중재를 적용한 연구는 유사실험 연구와 원시실험설계, 순수실험 및 무작위 대조군 설계를 포함하여 총 137편으로 1990년대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게재논문의 질적인 향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2000년대부터 근거기반 연구(evidence-based research)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어 임상실험연구(randomized clinical trial)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간호중재를 적용하고, 생리적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등 연구의 질적인 면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방법에서 표본크기를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한 논문은 17%에 불과하였다. 이에 대해 Kang(2002)의 연구에서 연구설계 과정에서 연구의 대상인 목표 모집단과 표본 모집단이 구분되어 서술되어 있지 않고, 표본의 크기를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조사연구나 실험연구, 유사 실험연구를 계획하는 단계에서 표본 크기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논문의 검증력 향상을 위하여 표본크기 산정과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구의 이론적 틀이나 개념적 틀이 제시된 논문은 11.8%로 외국저널 44.5%(Anderson et al., 2003)인 것에 비해 많은 차이를 보였다. 이는 학회지 게재논문의 페이지 제한과 학위논문보다 일반 연구논문이 증가되어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실험연구 또는 유사실험 연구설계에서는 연구주제에 대한 지식의 축적을 근거하여 연구 설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적어도 간호중재를 적용한 연구에서는 이론적 틀 또는 개념적 틀을 제시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연구에서 간호중재를 적용한 연구의 수가 크게 증가되고 있음은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고무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실험설계의 원칙과 표본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보다 체계적인 연구설계를 통하여 나온 논문들이 게재됨으로서 학회지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연구나 문헌 고찰 논문의 경우에도 단순한 조사연구에 그치지 않고, 연구주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설명이나 자료 분석을 통하여 이론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독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분석에서 질적연구는 33편으로 2000년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지 않았으나 방법론은 매우 다양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의 초반에 주로 적용하였던 근거이론이나 현상학 논문이외에 포커스 그룹, 주제내용분석, 대화분석방법, 실무연구방법, 여성주의 관점, 일상생활기록지, 내러티브 연구방법 등 다양한 질적 분석방법을 적용한 논문들이 게재되었다. 이러한 질적연구 결과들을 대상으로 이차분석을 통하여 일차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개념들을 중심으로 간호지식체를 창출하고 기존자료로부터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기존자료가 풍부한 근거이론이나 현상

학적 연구이외에 다양한 질적 방법 들이 이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Yi, 2004). 외국의 경우에도 질적 연구보다 양적 연구의 게재율이 더 높았는데 이에 대해 Anderson 등(2003)은 편집위원들이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에 대해 공평하지 않은 평가를 하게 되어 질적연구의 게재 불가율이 높아졌거나, 또는 연구자들이 질적연구보다 양적연구를 더 많이 수행하였기 때문이라 보고하였다. 그러나 대한간호학회의 심사결과를 분석한 Cho, Hyun과 Cho(2006)의 연구에서는 21편의 게재불가 논문 중에서 질적연구는 3편에 불과하여 오히려 양적연구에 비해 게재율이 높았으며, 본 학회지의 경우 논문심사평가지가 질적연구와 개념분석, Q방법론 등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 심사과정에서 공정한 평가과정을 거치고 있으므로 불공정한 평가를 받는 문제점은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새로운 간호개념을 개발하고, 기존의 간호현상에 대한 다양한 질적 접근을 통하여 간호지식체 개발을 위한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간호학이 탐구하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인간현상은 양적방법론이나 질적방법론 한가지 방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방법론적인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것(Kim et al., 2004)이 바람직할 것을 사료되지만 학회지에 트라이앵글레이션 방법을 이용한 논문은 4편만이 게재되어 있어, 앞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한 논문을 확대하여 간호연구의 영역을 확대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질적연구 논문에서 연구의 철학적 배경을 기술한 논문은 4편으로 적었으며, 질적연구를 위한 연구자 훈련과정을 설명한 연구도 6편에 불과하였다. 질적연구 방법에 대한 철학적 배경이나 연구자 훈련과 준비, 자료수집시의 윤리적 측면 등은 질적연구 논문심사 평가지에 제시되어 있는 항목으로 논문투고자들이 논문심사의 기준을 잘 숙지한 후에 논문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 질적 연구 결과를 설명하는 측면에서도 질적연구 방법에 대한 패러다임의 이해부족이나 훈련부족 등이 연구현상에 대한 독자들의 공감도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연구과정 설명과 결과기술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대한간호학회지 게재논문 분석에서 연구논문의 양적, 질적 향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간호학문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분석과정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학회차원의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최근 3년간 대한간호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분석하여 게재논문의 양적, 질적 측면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분석대상 논문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총

366편이며, 연구방법, 연구유형, 연구대상자와 연구방법별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양적연구 논문의 수가 질적 연구 논문보다 많았으며, 심사소요기간은 양적연구(116일)가 질적 연구(130일)보다 더 적게 소요되었으나 심사소요기간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논문의 84.4%가 6개월 이내 심사가 완료되었다. 연구대상자는 건강문제가 있는 대상자(40.7%)가 일반 대상자(31.9%)보다 약간 많았으며, 여성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증가된 경향을 보였다.

양적연구에서는 실험연구와 유사실험 연구의 증가가 두드러졌으나 여전히 조사연구가 가장 많았다. 질적 연구에서는 근거이론, 현상학, Q 방법론 등의 순으로 많이 게재되었으며, 기타 방법으로는 포커스 그룹, 대화분석방법, 일상생활 기록지, 내러티브 연구 등 분석방법이 다양해졌다. 양적연구에서는 표본수 산정이나 이론적 틀의 제시 등이 미비하였고, 질적 연구에서는 철학적 입장이나 연구자 준비에 대한 서술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결과와 같이 연구대상자와 연구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게재논문의 양적, 질적 향상이 있었으나, 학회지 게재논문의 질적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과정 및 연구방법의 원칙을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제언사항은 다음과 같다.

- 대한간호학회의 특성화를 위해서 학술지 체제 구성을 다양하게 변화시킬 것을 제안한다.
- 간호학문의 지식체 개발을 위한 근거기반 연구와 실험연구 등 방법론의 원칙에 근거하여 논문의 질적인 평가방안을 모색한다.
- 학술지 평가와 질 향상 모니터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게재논문의 양적, 질적 평가를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References

- Anderson, E. A., McDonald, D. D., Brewer, T., Kosciwewski, C., LaCoursiere, S., Andrews, L., & Delaney, C. (2003). Health care implications and space allocation of research published in nursing journals. *Nurs Outlook*, 51, 70-83.
- Chang, S. O. (2005). Analysis of paper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ccording to the knowledge classification type of nursing sciences. *J Korean Acad Nurs*, 35(1), 206-212.
- Cho, K. S., Hyun, M. S., & Cho, D. S. (2006). Analysis of review contents of the submitted papers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focus: The submitted papers in 2003. *J Korean Acad Nurs*, 36(1), 197-205.
- Choi, K. S., Song, M. S., Hwang, A. R., Kim, K. H., Chung, M. S., Shin, S. R., & Kim, N. C. (2000). The trends of nursing research in the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 Nursing. *J Korean Acad Nurs*, 30(5), 1207-1218.
- Jeong, G. K., Ahn, Y. M., & Cho, D. S. (2005). Coincidence analysis of keywords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with MeSH. *J Korean Acad Nurs*, 35(7), 1420-1425.
- Kang, H. C. (2002). Analysis of statistical method i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during recent three years. *J Korean Acad Nurs*, 32(6), 929-935.
- Kim, E. S., Kim, G. S., Kim, D. R., Kim, E. J., Sung, K. M., Shin, H. K., Shin, H. S., Lee, Y. J., & Jeong, S. H. (2004). Trends of nursing science inquiry in doctoral dissertations. *J Korean Acad Nurs*, 34(2), 315-323.
- Kim, H. W., Chung, M. S., Park, J. S., Suh, Y. O., Suk, M. H., Shin, H. S., Yang, J. H., Jang, H. J., & Jung, M. S. (2007). Developmental direction for review system of th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J Korean Acad Nurs*, 37(3), 422-430.
- Yi, M. S. (2004). Secondary analysis: focusing on qualitative research. *J Korean Acad Nurs*, 34(1), 35-44.